



NH농협생명 · NH농협손해보험 출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함.

- 농협은 1961년 종합농협의 출범과 함께 유사보험(공제) 형태로 보험사업을 영위해 왔으며, 1977년에는 체신보험을 인수하여 규모를 확대한바 있음.
- 2011년 3월 「농협법」 개정(안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어 있던 변액보험과 각종 금리연동 상품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됨.
- 총자산 규모로 볼 때 NH농협생명은 업계 4위, NH농협손해보험은 업계 9위를 차지함.

■ 특히, 농협의 보험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- NH농협생명보험의 총자산은 2011년 말 기준 35조 3,000억 원으로 생명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(155조 원), 대한생명(67조 원), 교보생명(61조 원)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함.
- 보험료 규모도 9조 2,590억 원으로 삼성생명(22조 6,410억 원), 대한생명(11조 5,426억 원), 교보생명(10조 9,569억 원)에 이어 네 번째임.

■ NH농협생명의 경우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판매망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부족한 보험설계사 수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,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작은 규모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.

- NH농협생명의 경우 전국 4,473개의 지역 농·축협 판매망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농협은행 지점 1,172개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되어 특정 보험회사 상품(농협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사 보험상품)을 25%까지만 판매할 수 있으나, 농·축협의 경우 5년 동안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유예되어 있어 보험상품 판매에 제약이 없음.
- 보험설계사 규모의 경우 생명보험업계 ‘Big 3(삼성생명, 대한생명, 교보생명)’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수가 약 2만~3만 명인데 반해, NH농협생명이 보유한 보험설계사 수는 1,182명에 불과하여 비교 열위에 있음.

- 또한,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총자산 및 보험료 규모가 대형 손해보험회사와 비교하여 매우 작음.
- 일부 전문가들은 NH농협생명보험의 적극적인 보험설계사 유치와 NH농협손해보험의 타 손해보험 회사 인수합병을 예견하고 있으나, 농협보험 측에서는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.

(NH농협생명 단숨에 Big 4, 중앙일보 등, 3/2)